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1. 백두산 높이 솟아 기다린 은인
천지물 흘러내려 맞이한 은인
태양민족 운명을 한품에 안고
일심단결 대가정 붉게 피웠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2. 락원을 펼치시여 사랑의 만리
붉은기 지키시여 전선길 만리
선군령도 총대로 폭풍도 헤쳐
사회주의 내 조국 승리 떨치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3. 삼천리 이 강산을 비치는 태양
새 세기 천만리를 밝히는 태양
강성대국 이 조선 찬란히 세워
자주시대 봄노을 펼쳐가시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애국의 천만리, 인민의 환호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하며 지금 조국땅은 경축의 환희로 설레이고있다.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마루에 높이 솟은 정일봉의 밤하늘에 오색찬연한 축도가 신비의 불꽃세계를 펼쳤고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군민이 터진 만세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했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이 펼친 김정일화축전과 백두산상제육경기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성황리에 열리고있으며 은하수관현악단, 국립교향악단의 명배우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이 경축무대에서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가 높이 울리고있다. 그런가하면 세계의 곳곳에서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기념행사들이 벌어지고있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사상과 정도, 덕담의 위대성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사상과 정도, 덕담에 있어서나 쌓으신 업적에 있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출중한 위인상은 지난 세기는 물론 새 세기에도 남김없이 파시되었다.

그 누군가는 위인의 사상과 품고를 알려거든 위인의 하루를 보라고 했다. 장군님께서 맞고보내시는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나날이었다. 이 땅의 한해한해, 춘추추풍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

며 흘러가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군대와 인민을 찾아 이른 새벽에도, 눈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초강도강행군의 길에 오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선군령장의 애국애민의 대장정, 위대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위력을 떨치게 되었으며 CNC기술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경제강국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선군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지난해 정초 어느 한 땅크부대를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하여도 막강한 군사력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 선군을 떠나서는 결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일으키자는것이 나의 의도이라고 하시었다.

장군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만년을 뚫고 려사의 2012년에 반드시 우리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강성대국으로 세상에 우뚝 올려세우시려는것이 장군님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령하 30℃를 기록하는 북방의 맹판 추위로 아랑곳하지 않고서도 대고조의 격진장 최첨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로 초강도강행군의 첫자욱을 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그이께서는 무려 온 나라의 수백개 단위들을 찾고찾으시며 군대와 인민을 대고조진군으로 불러일으키시어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도록 하시었다.

주체섬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나라의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난것도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길에서 태어난것이다.

도처에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이 일떠서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으로 개진확장되어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식료공장, 방직공장 등 경공업기지와 양어기지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제품들과 철강산업, 자라, 연어를 비롯한 고급어종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나날이 윤택하게 하고있다.

세인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2009년도 현지지도강행군을 놓고 최대기록이라고 하였는데 지난 2010년에는 또다시 그 기록을 넘어섰다고 광범히 전하였으니 장군님의 애국의 발걸음에 맞추어 하루, 한달, 한해가 다르게 세기적인 변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는것이 우리 조국의 모습이고 기상이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장군님의 지난 해 현지지도소식을 전하면서 그이의 현지지도로정은 그 어느 부문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

고있으며 다녀가신 모든 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성과들이 일어나고있다고 전했다.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흑심한 강추위가 들이닥친 올해 1월에도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모든것이 얼어붙고 터지던 혹한의 그 나날 장군님께서는 남포유리공장,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중앙동물원, 통안산생물공장, 사리원의 식료공장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생산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노동자들과 연구사, 일군들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나의 빨찌산식강행군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속에 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쉬임없이 애국애민의 길을 걷고계신다.

민심은 천심이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이 시각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선군령도를 더 잘 받들어 올해에도 변에 변을 터치며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갈 열의와 의지로 가슴불태우고 있다.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경사로운 2월의 환호성에 바야흐로 이 땅위에 울려 퍼질 강성대국 만세소리가 실려오는듯 하다.

본사기자 김경수

2.16경축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하며 백두산밀영결의대회가 12일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진행되었다.

백두산밀영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이시며 불멸의 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호모와 신뢰심으로 차넘치고있었다.

밀영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를 드러운 대형기둥들이 떠있었다. 또한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글자를 새겨놓은 대형기둥들이 떠있었다.

대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최봉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승리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불굴의 기상과 혁명적 락관을 안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려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

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일성조선의 성스러운 100년사를 총화하게 되는 올해에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정각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김일성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선군조선의 강성변영과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준 특기할 려사적사건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민군대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신념의 표대로, 삶과 투쟁의 기치로 더 높이 추켜들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결사옹위하여온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이어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강성대국건

설의 격진장들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기발을 펴며 휘날리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용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조선의 강성변영을 이룩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천출위원을 받아들여올린 혁명의 성산이 터치는 감격의 피성이런듯 백두산밀영상공에 경축의 축도가 장쾌하게 터져올랐다.

비범하고 령할한 령도예술로 천만군민을 승리에로 이끌고서 민족변영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 안고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백두대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뜻깊은 2월의 나날에

류다른 《생일선물》

언제인가 뜻깊은 2월 명절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날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업에 전념하시었다.

그래서 한 일군은 그이께 생신날 하루만이라도 휴식을 하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했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장군님께서 나는 수령님의 전사라고 전사에게 무슨 생일이 따로 있었는가 하시

헌신의 하루

주체88(1999)년 2월 16일이었다.

뜻깊은 그날도 온 하루 수백리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신 장군님께서 저녁무렵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을 때였다.

고의 나에게는 오늘이 여느 날과 다름없는 로동일이라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었다.

이러 나는 벌써 《생일선물》을 받고 즐겁게 생일을 쇠는중이라고 말짓을 대신 그이께서는 수북이 쌓여있는 문건무지를 한손으로 툭툭 두드리시며 이것이 내가 받은 《생일선물》이라고, 얼마나 호뜻한 일인가 하시며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었다.

좌중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오늘도 나는 군인들과 하루를 보냈다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 보내는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바로 그런 날이 나의 명절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오늘 인민들

의 식생활을 보다 향상시킬 방도를 의논해보자고 하시었다. 시간은 흘러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변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라고, 자신께서는 모든것을 다

고결한 인생관

주체98(2009)년 2월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장군님께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지났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올 행복의 지상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매일 또 현지지도를

바쳐 일 하고 일 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넘원하신대로 기어이 우리 나라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고 한다고 하시고는 새날의 일감을 잡으시었다.

인생관

하러 떠나려고 한다고... 마디마디에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그이의 헌신의 세계와 고결한 인생관이 어려있는 말씀이었다.

일군들이 그이께 너무 무리하지 마실것을 간청하자 장군님께서는 일없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험한 길을 걷는것이 자신에게 어서는 락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강의한 공격정신의 분출

견인불발의 의지와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강성변영의 용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정충의 목소리가 남조선 각에서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공화국이 CNC기술의 발전,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생산 등 중요공업부문들에서 기술과 원료의 국산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대해 보도하면서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혁명적폭풍을 불러일으켜 대비약, 대혁신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칭송하였다.

《련합뉴스》, 《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북이 어려운 고비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해온 전통적인 혁명방식과 투쟁기풍을 살려 강성대국건설목표를 달성하러

하고있다고 강조하고 여기에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단국을 뚫고 북을 상승의 한길로 계속 이끌어가시려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의도가 깃들여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리상사회로 전변된 자강도의 현실, 현대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하는 초고전력전기로의 완성 등 련이어 일어나는 혁신과 창조는 기적들속에서 북주민들의 사상의지는 더욱 굳어져지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미국의 봉쇄, 압박이라는 2중3중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건설과제를 받기하시고 북주민들을 불러일으키신 리유가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한 언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도 최첨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고 동서남북을 종횡무진 하시며 새로운 대고조의 불바람을 지퍼주신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강의한 공격정신의 분출이라고 격찬하였다.

자주적선님과 드센 배짱으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공화국의 투쟁방식에 대해 언론들은 한결같이 《행동의 속도》와 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북의 초강경행보》, 《상상도 못했던 신속한 초강경실천조치》라고 경탄을 표시하였다.

대구시 남구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한 대학교수는 김정일장군님의 당력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살책동도 짓뭇개버리며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맞받아나가는 필승의 당력이라고 퍼력하였다.

정치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사는 북은 누구의 위협이나 압력에 타협하거나 굴복해본 적이 없다. 북은 미국과 당당히 맞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회주의붉은기울 지켜간다고 말하였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 연구위원 류유진은 글에서 북의 드센 공격전은 선군의 위력이며 그앞에 미국은 맥을 못추고있다고 썼다.

남조선인민들은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전략기술로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에 이끄시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 명절의 아침이 밝아왔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애국의 선군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는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이 추구한 선군의 기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민족자주의 식과 자존심, 민족적 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며 민족의 통일과 통성변영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민족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주체90(2001)년 1월 3일 해당 부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한해의 전망을 밝혀주시면서 조국통일과 관련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었다.

말씀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이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에서 선군혁명단결에 기초한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다.

그이께서 이날에 하신 말씀에는 선군으로 6.15시대를 힘있게 추동해 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어려여있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애국의 선군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

건히 지켜주시고 조국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발표로 북남사이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력,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우익보수세력의 방해책동은 우습하였다. 하여 조선반도에는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 북남사이 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중단된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밟아주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로작에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이 분렬의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통성변영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리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대결의 먹구름을 산산조각내며 통일의 밝은 빛을 겨레에게 안겨준 이력사적인 로작을 받아안고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리었다.

선군은 민족을 위한 애국이고 통일변영이다.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의 반통일대결책

당고 6.15통일시대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 지난 3년간 통일의 바른 앞길을 다시 밝혀주시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법한 조치들도 련이어 취해주시어 온 겨레가 자주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통일진군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도록 해주신분도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 지, 뛰어난 통일방략은 공화국창건 6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의 구절구절에도 어려여있다. 이 로작에는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로작에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이 분렬의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통성변영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리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대결의 먹구름을 산산조각내며 통일의 밝은 빛을 겨레에게 안겨준 이력사적인 로작을 받아안고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리었다.

선군은 민족을 위한 애국이고 통일변영이다.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의 반통일대결책

동은 지난해에 극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끝날내는 조선반도에서 총포란이 오가는 엄중한 전쟁국면까지 조성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땅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았다. 밀려드는 침략과 전쟁의 불기름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여 겨레의 운명을 지켜준것은 《운명의 신》도,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군의 힘이었다고 민족을 위하는 최대한의 자제와 변함없는 통일애국의 지였다.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의 대포소리가 온 한해 그칠줄 몰랐던 2010년은 침략과 불의를 용납치 않으며 단호히 짓궂게버리려는 선군령장의 땅고 부대현지시찰로 막을 울리고 내리었다. 그 애국의 선군장정의 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세계최강》을 떠드는 제국주의강적이 공포에 질려 뒤걸음치고 전쟁의 해가 아니라 희망의 2011년이 펼쳐질수 있었겠는가.

새해 정초부터 평양에서 련이어 울려나온 획기적인 대화제의, 평화호수를 들으면서 우리 겨레는 바를 66년이 되는 올해에 전쟁을 막고 어떻게 하나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 백두령장의 뜨거운 민족애, 통일애국의지를 누구나 감동깊이 절감하였으며 용기백배하여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 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은 곧 우리 민족의 통일이시다. 그이께서 결심하시어 못해낸 일이 없다. 회세의 선군령장이 계시고 불멸의 통일애국이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유정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끼리

현시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요구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떠난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과 변영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반민권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이어온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이 땅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장구한 력사적기간 피출과 언어, 력사와 문화, 풍습의 공통성을 변함없이 이어온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으며 뛰어난 슬기와 재능으로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높이 떨치었다. 5천여년의 력사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고귀한 문화유산들마다에는 민족의 넋과 혈통이 그대로 스며들어있으며 이러한 민족적단일성은 세상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조선사람이라면 비록 사는 고장이 달라도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서로 땀수 없이 하나로 이어져있다. 그 어떤 외세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말할수조차 없다.

우리 민족이 반세기이상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분렬의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은 외세의 지배와 민족분렬리간책동에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할수 없으며 통일도 이룰수 없다.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해야 할 관계이다.

외세의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이 하나된 통일을 이룩하자면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바로 전

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북과 남, 해외의 주체적력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는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통일을 지향해나간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같은것은 결코 문제로도 되지 않으며 민족의 대단결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다.

오늘 북남사이에는 대결과 전쟁의 국면에 처한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절박한 과제가 나타나고있다. 북남관계의 개선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로 북남관계개선의 전환국면을 열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공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 근본책은 바로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애국열의와 단결의 정신을 분출시켜 이 땅위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거대한 열풍을 안아왔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와 경이적사변들은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된 우리 민족끼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새 세기의 기술에서 우리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친것처럼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맞은 오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변영의 새로운 력사를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이다.

윤현주



2.16경축 얼음조각축전 진행

2.16경축 얼음조각축전이 11일부터 백두산기슭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백두의 흰눈덮인 이 고장 특유의 얼음조각들은 만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삼지연못가와 삼지연군문화회관마당에 전시된 얼음조각은 수백점에 달한다. 삼지연군의 근로자들이 창작한 눈조각 《백두산일영고향집》과 얼음조각 《꽃향》, 《불동》을 비롯한 태양, 모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바라는 공화국 군대와 인

민의 절절한 심정이 잘 반영되어있다.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돌격대원들은 삼지연못가의 천연수림을 배경으로 《건강축원》의 글발이 새겨진 얼음조각문자와 대고조의 기상을 떨치며 강성대국으로 질풍같이 내딛는 공화국의 전진상을 보여주는 다종다양한 얼음조각들을 전시해놓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해마다 2월이 오면 경에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6.18건설돌격대원들은 얼음조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눈내리는 백두산기슭에 또다시 축원의 무대를 펼치고싶은 열망을 안고 돌격대원들은 온

갖 지성을 바치었다. 삼지연군인민들은 정일봉이 높이 솟은 영광의 땅에 으뜸가는 얼음조각축전을 펼쳐치고 하면서 강과 계곡을 누비며 투명도가 제일 좋은 얼음장들을 골라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백두광명성이 높이 솟아오른 력사의 그날을 경축하여 신비경, 황홀경을 펼친 얼음조각축전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군대와 인민들의 역센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제 15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이 14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는 《제 15차 김정일화축전》, 《2.16경축》이라는 큰발과 축전마크가 세워져있고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있다.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을 백두산을 배경으로 형성한 미술작품이 축전장에 모셔져있다.

회세의 천출위인을 우리러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총정과 열도의 세계에 떠받들려 올라다섯번째 넋을 새기며 성대히 펼쳐진

축전장은 아름답게 퍼어난 수만상의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루고있다.

축전장에는 무려,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와 인민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들어 피운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인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내놓았다.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안동춘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꽃축전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위인칭송의 축전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2월의 명절을 보다 뜻깊게 장식하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통성변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추동하는데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행복의 큰 지붕아래 우리가 산다

《문돌쩌귀에서 볼나겠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것 같다.

얼마전 일요일, 남순희 평양교원대학 학장의 집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 미처 문이 달릴새가 없었다. 평양의 해방산기술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에 이사한 학장선생의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

경치 좋은 명당자리에 들어앉은 해방산기술의 살림집들은 강성대국의 표본거리인 만수대거리와 마찬가지로 건축형식이나 질적 측면에 있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최상급의 살림집들이다.

우리가 남순희학장이 살고 있는 6호동 10층 1호에 들어서니 축하의 꽃다발에 물려있던 그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찾아온 사람들을 친절히 소개해주었다. 평양제4소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영웅으로, 박사로, 인민교원으로 성장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옛 스승의 경사를 제일처럼 기뻐하며 약속이나 한듯이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젊은 만남은 사람들한테서 축하를 받을때 정진차렷새가 없다며 남순희학장은 우리를 집안으로 이끌었다. 땀은 땀이 달린 용접사이며 부엌, 식사실외에 살림방이 다섯칸이나 되는 큰 집이었다. 세면장에 물가열기가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뜨끈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배치가 로인들을 위한 세

면장과 위생실은 따로 구비되어 있었다. 전실에 있는 계단을 따라 웃음으로 오르내리면 딱 재운 책들이 류다른 정서를 자아냈다. 서재로 리용되는 방이었다. 하나하나가 생활에 편리하면서도 특색있게 설계되어 있어 돌아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

《원래 살던 집도 네칸짜리여서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살았지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훌륭한 새 집을 받고보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디다.》

나라였던 그 세월 불쌍한 유복너로 태어나 작은 몸 하나 담을 움막집조차 없어 한 지에서 떨던 그때 이렇듯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될줄을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이역 땅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 시달리다가 절세의 위인들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잃었던 행복을 되찾고 오늘을 한개 대학의 학장으로까지 성장한 남순희녀성이었다.

일흔여덟살의 나이에도 청춘의 활력을 넘쳐 후대 교육사업에 열정을 다 바쳐갈수 있을것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후대교육사업에서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못내 대견해하시며 저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비롯하여 국가수훈의 높은 영에도 안겨주시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원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에

도 남순희학장이 잊지 못하는 감동깊은 일화가 있다. 어느해인가 국가적인 큰 대회에 그가 참가하지 못한적이 있었다. 그때로 말하면 대학 학장사업을 시작하신 1년도 채 안되는 때여서 본인 자신도 그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 있었다.

하지만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그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실을 로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못내 아쉬워하시며 그에게 대회장가자들과 똑같이 대회대표종과 함께 귀중한 선물을 가슴 가득 안겨주시었다. 그후에도 아시아와 유럽,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도 보내주시어 그가 세계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으로 맡은 일을 더 잘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이시다.

받아안은 그 은혜만 해도 보답할길 없는데 오늘 이렇게 중얼거리는 새집까지 안겨주시었으니 걱정에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하는 남순희학장이었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해방산기술의 새집들에 이사한 사람들은 우리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현관만 놓고 보아도 로동자, 사무원을 비롯하여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궁궐같은 새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켜셨습디다.》

그의 말은 끝났으나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자본주의 세상갈이면 웬만

한 사람들은 꿈조차 꾸지 못할 궁궐같은 집들에서 돈 한푼 안내고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이 살고있다.

이 모든것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떠받들리우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경이적인 현실인것이다.

리상적인 새집을 돌아볼수록 어버이장군님을 높이 모신 행복의 큰 지붕아래 인민들모두가 만복을 누리가고있다는 뿌듯한 긍지로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참으로 한없이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임을 페루로 절감한 인상깊은 취재길이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남순희학장이 후대교육사업에 열정을 다 바쳐갈수 있을것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며칠전 《로동신문》에 실린 이말리아의 한 저명한 인사의 글을 읽이내려가던 나는 다음의 글줄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언제인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연단에서 포커스의 한 인사는 지지점과 지레대만 있으면 지구라도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다고 한 고대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을 상기하면서 이런 토론을 한바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지점도 지레대도 언지 못하였으며 지구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상계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지점을 찾아주시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주체사상이다. 우리들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그 지레대는 인민대중이다.

... 나는 그의 주장이 옳은것이라고 공감했다. 오늘에 와서 나는 그에 첨부하여 이런

점을 더 명백히 하고싶다. 그런 지레대로는 대중일반이 아니라 김정일각각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무한대한 정진력을 발휘하는 인민대중만이 될수 있다.》

평도자의 두리에 천만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

결의 위력을 지구를 움직일수 있는 지레대에 비친 필자의 주장이 함축된 대목이었다.

일심단결, 세상에서 오직 우리 공화국에만 있는 이 말을 두고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오늘 지구상에는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이 저하나만의 리익과 주장

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다.

오랜 세월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사회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성원들이 평도자와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굳게 단결된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다.

수령중심의 일심단결로 승화시키고 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혁명철학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숭고한 화폭이 펼쳐질수 있었다.

일심단결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뒤를 돌아보며 궁지

마루를 향한 총공격을 힘차게 밀려나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평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자랑찬 결실이다.

지난해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통일인사는 북녘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3대무기인 일심단결과 자력갱생,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지고있기에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경탄의 목소리를 터쳤다.

그렇다. 평도도 크지 않고 인지도 많지 않은 공화국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칠수 있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하기에 핵무기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이야말로 선군조국의 가장 고귀한 재부라고 말할수 있다.

김철민

수 필 재 부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런듯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황해북도인민학습당.

연건축면적이 4 500여㎡에 달하고 수십만부의 장서능력과 500여석의 독자수용능력, 방대한 량의 자료기지를 가지고있으며 최첨단정보기술 체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현장봉사와 인민대학습당과의 원격강의도 할수 있고 군도서관들의 망체계가 구비되어있는 이 인민학습의 정당은 선군조국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은 벌써부터 도안의 인민들의 과학기술지식보

급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으니 사리원시와 도안의 군들에서 온 수많은 독자들이 붐비고 있었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가 나붙은 넓은 홀에서는 독자들이 대형 컴퓨터를 통하여 저마끔 학습에 필요한 안내를 받고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리춘심실장은 몇해전까지만 해도 자그마한 도서관에 불과하던 건물이 오늘은 지식경

현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변모되었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목록 검색으로부터 도서 및 자료 열람, 강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망체계에 의해 진행되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 보급기지로 전변됨으로써 독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강의도 받으며 폭넓은 지식의 랍을 쌓아갈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원격강의실로 향했다. 밝은 해살이 비쳐드는 원격강의실안에 들어서니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전송되는 열람, 강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망체계에 의해 진행되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 보급기지로 전변됨으로써 독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강의도 받으며 폭넓은 지식의 랍을 쌓아갈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원격강의실로 향했다. 밝은 해살이 비쳐드는 원격강의실안에 들어서니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전송되는 열람, 강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망체계에 의해 진행되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 보급기지로 전변됨으로써 독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강의도 받으며 폭넓은 지식의 랍을 쌓아갈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전자열람실에 들어서니 컴퓨터망을 통하여 한창 자료들을 열람하고있는 독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컴퓨터망을 통하여 최신과학기술을 열람하는 과정에 자기 능장의 특성에 맞는 논변종자연구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기술지도 원이며 공장 CNC화면에 필요한 최첨단기술도 이곳에서 습득할수 있었다는 어느

리춘심실장은 이곳에서 사리원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여러 군사이, 각 도 도서관들 사이에 컴퓨터망을 형성하여 최신과학기술정보자료들을 제때에 보강해줄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도 서들과 잡지, 문헌 등에 대한 열람봉사로 널리 진행되고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을 인민학습의 전당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 있는 독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이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기쁜 마음으로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박원평

외국인들의 반향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며 조국땅우에 통성변영의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라프나 사기야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끊임없는 진보를 이룩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로씨야철학협회 편다지부 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 겐나지 아스파호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경제건설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그것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공부화하시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원에 있는

발전공부화하시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원에 있는

리는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사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방글라데슈자력갱생연구소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위대한 김정일각각하는 탁월한 정치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각각하를 끝없이 신뢰하고있다.

평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있다.

사회주의조선에서는 통성변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며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믿는다.

본사기자

통성변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조선

부강로국의 래일을 그리며

오늘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조국의 강성변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간직되어있는것은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정신이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려는 고결한 정신을 지닌 참된 인간들의 현신투쟁에 의하여 오늘 이 땅우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대계도간척지건설의 완공, 세기적인 이 전변도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애국애족의 인생관을 지닌 불굴의 인간들이 안아온 영웅사시적화폭이다. 보기 드문 대해일로 방조제가 무너졌을 때 하루에 수십km의 구간을 돌집을 지고 달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을 뚫고 조국의 지도를 달라지게 한 그들의 위훈을 한두마디의 말로나 글로써 다 설명할수 없다.

부강변영할 미래를 확신하는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이 땅에 일떠서는 만년대국의 창조물들은 그 질이 최상의 수준에서 담보되고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

이것은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최첨단건설자들의 마음속깊이 자리잡은 신념의 구호이다. 높이 솟은 언덕과 연연히 뻗어나간 물길골들마다에 미래를 위해 바치는 그들의 깨끗한 량심의 자욱이 력력하여 있었다. 2012년까지 거이 이 공사를 완공하려는 그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새 공법에 의한 립체적인 언체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한차례의 물동이라도 더 실어나르려고 수송자동차들이 구배가 심한 고개길을 뒤로 오르는데 전에 없던 광경도 레사롭게 펼쳐지는 최첨단건설장이다.

미래를 략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힘으로 강성변영의 만년토대를 닦아나가는 법이다. 오늘 다게단으로 펼쳐지는 사변들과 우후순차처럼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공화국인민의 자력갱생의 정신

이 비껴있다.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여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한 김철의 기적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실천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엄혹한 강추위속에서도 철생산에 필요한 야외설비들과 배관들을 정비하여 첫 쇠물을 부어낸 그 기세로 전진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주체철생산체계를 거이 완성한 김철사람들의 심장에 간직된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거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확고한 신념과 의지였다.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차게 벌어지는 최첨단돌파전도 부강조국의 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한차례의 물동이라도 더 실어나르려고 수송자동차들이 구배가 심한 고개길을 뒤로 오르는데 전에 없던 광경도 레사롭게 펼쳐지는 최첨단건설장이다.

미래를 략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힘으로 강성변영의 만년토대를 닦아나가는 법이다. 오늘 다게단으로 펼쳐지는 사변들과 우후순차처럼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공화국인민의 자력갱생의 정신



